

강진 병영면 '전남형 빙집 재생' 선도 모델 뜯다

도내 9개 시·군 70명 참여 현장포럼
지방 소멸 대응 공공·민간 역할 제안
폐창고 핫플 변모 '강진형 모델' 눈길

강진군이 인구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빙집 재생'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병영면 성하객잔에서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5년 전남형 빙집재생 현장포럼 in 강진 병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와 목포, 순천, 장성, 영암 등 도내 9개 시·군 도시재생 관계자와 중간지원조직, 주민 앵커 조직 등 70여명이 참석해 빙집 문제 해결을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 장소인 '성하객잔'은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가 조성사업을 통해 빙집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행사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부 전문가 강연 및 사례 발표와 2부 현장 답사 및 워크숍으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연구위원이 국내외 빙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승근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병영면 애코뮤지엄'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빙집과 마을의 역사, 정체성을 반영한 아카이빙이 중요하다"며 "병영면이 가진 고유한 마을 경관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의 재생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창민 (주)싸이티지니 소장은 남해군의 빙집 거래 플랫폼 '봄집' 운영 사례를, 서동선 곡성 팬엔



최근 병영면 성하객잔에서 '2025년 전남형 빙집재생 현장포럼 in 강진 병영'이 열렸다. 〈강진군 제공〉

디협동조합 대표는 청년 마을 '정춘작당'과 워크숍을 통해 빙집 재생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도시재생 사업지와 빙집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폐양곡 창고를 핫플레이스로 변모시킨 '하멜양조장'과 빙집을 활용한 레지던스 공간 등을 방문해 강진형 빙집 재생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장미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병영면 주민과 청년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빙집 재생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빙집 문제 해결에 대한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빙집 재생 사업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안착시키고, 나아가 '전남형 빙집 재생'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생물다양성 심포지엄' 성료

학계 등 참석 생태계 위기·대응 논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최근 목포 폰타나비치호텔에서 '2025 섬 생물다양성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섬 생물다양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계와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사진〉

심포지엄에서는 ▲섬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홍선기 목포대 교수) ▲섬 식물상 현황과 희귀식물 보전(현진오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장) ▲기후변화와 어류 종 다양성(김병

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등 총 8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섬 생태계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와 외래종 유입 등 섬 지역에 처한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군, 진드기 감염병 예방 '우수' 표창

질병청 평가서 맞춤형 관리 호평

신안군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평가 대회'에서 우수 자체로 선정돼 관리성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관련 사업을 추진한 전국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운영 실적,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신안군은 여러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관리 사업'을 펼치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제적

으로 파악해 특화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추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정원 관리 직업자, 농업인, 노인대학 수강생 등 감염 취약 계층을 직접 찾아가 예방 교육과 흥보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이 없어 예방 수칙 준수가 최선"이라며 "앞으로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최 시동

내년 4월…17일까지 총감독 모집

상권 상생·소득 증대 경제 축제로

진도군이 세계적인 명품 축제인 '제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축제 기간을 2026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으로 확정했다.

이번 축제는 완성도와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총감독에게 기획과 연출 전반에 걸친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하는 '총감독제'를 대폭 강

화한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대표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머거리 및 체험 활동 개발 ▲평일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군오는 17일까지 축제를 이끌어갈 총감독을 공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진도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중물이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군 "서울-제주 호남 경유 고속철 유치 온힘"

17일 국회서 노선 반영 위한 토론회

해남·완도 경유성 등 집중 부각

해남군이 서울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 유치를 위해 국회 공론화에 나선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지원·민홍철·민병덕·민형배·허종식·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완도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

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당위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매년 기상 악화로 1천500여건의 결함이 반복되는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체 교통망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고속철도 유치 전담 TF 팀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전남 서남권이 '국가 AI·에너지 수도'의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해남·완도·영암군이 공동으로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고속철도 유치의 당위성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로 미래 100년 먹거리 완성"

시정연설서…내년 예산 6천529억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 등 역점 추진

신우철 완도군수가 해양치유산업 고도화와 해조류 블루카본 선도 등 내년도 군정 6대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군수는 지난 4일 열린 제33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사진〉

신군수는 올해 성과로 ▲핵심 사업 5건 정부 공약 반영 ▲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2만 명 돌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타 통과 등을 꼽으며,

"지난 12년간 완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



을 쌓아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도 6대 핵심 전략으로 ▲해양치유·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 ▲독보적인 웰니스 관광 패러다임 확립 ▲2026 Pre-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기후변화 대응 농수축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섬·육지 균형 발전 및 춤출한

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을 차별화하고,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생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블루 크레딧 시범사업' 등 탄소 중립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SOC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신우철 군수는 "모든 정책의 중심은 군민"이라며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 그 성장이 군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직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올해 본예산보다 5% 증가한 6천5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최근 나주공업고등학교 스마트팩토리과 1학년 2반 학생들이 취약계층에 연탄 200장을 직접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공고생 취약계층 '사랑의 연탄' 배달

스마트팩토리과 1학년 학생들

학생들은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연탄을 구매했으며,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두 가정을 선정한 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줄을 지어 릴레이 방식으로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향운 나주공업고등학교장은 "학생들이 스스

로 나서서 지역 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고,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영희 성북동장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행정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성북동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